

고구려의 요동지방 진출정책과 모용씨

孔 錫 龜

(한밭대 교수)

1. 머 리 말
2. 고구려의 요동지방 진출 배경
3. 고구려의 요동지방 진출기도와 모용씨
4. 고구려의 좌절과 모용씨
5. 고구려의 요동지방 확보와 모용씨
6. 맺 음 말

1. 머 리 말

우리에게 고구려는 1,300여 년 전에 이미 멸망해 버린 과거의 역사이다. 하지만 고구려사가 남긴 흔적들은 민족사에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고구려가 강력한 국가였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 내용은 5~6세기 고구려가 당시 동북아의 강국으로서 존재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남북분단이라든지 중국의 역사왜곡이라는 우리의 현실을 극복해나가는 역

사적 준거로서 작용하고 있다. 강력했던 고구려사의 배경을 알아보자면 고구려가 사방으로의 영역확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이다. 따라서 고구려의 영역확장은 고구려사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바탕이기도 하다.

고구려는 압록강, 혼강 유역을 배경으로 하여 국가를 성립한 이후로, 인접한 요동지방에 존재하던 중국의 군현세력들과 다양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고구려사의 발전과정에서 요동지방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필자는 고구려의 요동지방 진출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검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일찍이 요서 및 요동지방으로 내려와 정착하고 있던 모용씨와의 관계가 된다. 모용씨에 대하여는 지배선 교수의 다양한 연구업적¹⁾이 있다. 고구려의 요동진출을 이해하는 데는 내재적 발전과정과 함께 모용씨와의 관계사를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²⁾

본고에서는 고구려가 요동지방을 차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한 진출정책을 중심으로 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고구려가 모용씨가 세운 왕조들과 어떻게 대립 투쟁하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1) 池培善, 『中世東北亞史研究-慕容王國史』, 일조각, 1997.

2)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연구업적이 참조된다.

孔錫龜, 『高句麗領域擴張史研究』, 서경문화사, 1998.

田中俊明, 「高句麗 前期・中期の遼東進出路」, 『朝鮮社會の史的展開と東アジア』, 山川出版社, 1997.

김영주, 「高句麗 故國原王代의 對前燕關係」, 『北岳史論』 4, 국민대학교 국사학과, 1997

李基東, 「高句麗史발전의 劃期로서의 4世紀」, 『高句麗・渤海研究』 I, 미술사강좌 10, 1998.

여호규, 「4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질서와 고구려대외정책의 변화」, 『역사와 현실』 36, 2000.

姜仙, 「고구려와 전연(前燕)의 관계에 대한 고찰」, 『고구려연구』 11, 고구려연구회, 2001.

공석구, 「고구려와 모용'연'의 갈등 그리고 교류」, 『강좌 한국고대사』 제4권, (재)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2003.

2. 고구려의 요동지방 진출 배경

먼저 요동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요동은 요하이동 지역에 설치된 요동군이라는 특정의 행정구역 명칭과 동북 또는 만주지역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명칭이라고 한다.³⁾ 따라서 본고에서 사용하는 요동이라는 개념은 중국의 동북지역을 광범위하게 지칭하는 일반적인 명칭이 아니다. 고구려가 3~4세기 대 서쪽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고구려의 서쪽지역을 나타내는 제한적인 의미로 요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당시 漢 및 晉에서 설치한 행정구역 명칭인 요동군을 중심으로 하여 그 주변지역을 나타내는 지역적인 용어로서 사용하고자 한다.

고구려는 요동지방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여기서 정책이란 특정한 가치를 획득, 유지, 증대시키기 위한 방침이나 계획이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다. 따라서 고구려의 요동진출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구려가 요동지방을 차지함으로써 얻어지는 국가적인 이익이나 타당성 등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고구려에게 요동지방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고구려가 요동지방으로 진출하고자 했던 배경을 요약해 보면, 그것은 당시 고구려가 당면하고 있었던 대내외적인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1) 대내적인 배경

고구려는 요동지방 진출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였다. 그 이유를 몇 가지만 들어보면, 첫째로 이 지역의 지리적인 위치관계이다. 이 지역은 중국의

3) 김한규, 『요동사』, 문학과 지성사, 2004, 49-61쪽.

동북쪽 변방에 설치된 군현에 해당한다. 더욱이 요동군은 이 지역에 설치된 여러 군현(낙랑군, 대방군, 현토군)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한다. 따라서 고구려의 성장은 인접한 요동군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고구려가 요동지방을 차지하게 된다면 중국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위협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요동지역에 축적되어 있는 역사성은 고구려의 국가형성 및 문화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요동지역은 일찍이 공손씨가 독립적인 정권을 세워 중원세력과 오랜 기간 대립할 수 있을 정도로 양호한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춘 지역이기도 하다. 둘째로는 이 지방의 높은 문화와 넓은 평원에서 산출되는 물자 획득은 고구려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⁴⁾ 요동지방에 전개된 넓은 평원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발해만에서 나오는 수산물 그리고 철을 비롯한 광산물 등은 고구려의 국가형성 및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고구려가 요동지방으로 영역을 확장하려고 추진한 배경을 생각해보면 몇 가지 측면이 지적된다. 첫째로는 고구려인들이 당면할 수밖에 없던 환경적인 요인을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환경적 요인이란 고구려지역의 지리적 환경과 고구려인들이 당면했던 정치·사회적 여건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고구려지역의 지리적 환경에 대하여 알아보자. 고구려지역은 농경생활을 하는데 그리 좋은 지리적 환경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혼강·압록강유역 일대는 산악이 많고 농경지가 좁을 뿐만 아니라 척박하였다.⁵⁾ 이러한 상황은 고구려가 초부족적인 국가체제로 성장하는데 제한요인이 되었다. 이 점은 고구려의 정치적 성장과 반비례하여 더욱 노정되어 갔을 것이다. 이에 고구려에서는 자기발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적 기반을 필요로 하였다고 보여진다.

4) 三上次男, 『高句麗と渤海』, 吉川弘文館, 1990, 280쪽.

5) 당시 고구려가 안고 있던 경제적 기반의 취약성에 대하여는 『三國志』에 “(고구려는) 큰 산과 깊은 계곡이 많으며 넓은 들판이 없어 산골짜기에 의지하여 살면서 산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을 먹고산다. 기름진 농토가 없어 부지런히 농사를 짓는다 해도 먹고살기 힘들다.”(『三國志』 권30, 魏書 烏桓鮮卑東夷傳 30, 高句麗傳).

이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고구려는 주변지역으로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그곳에서 산출되는 산물로서 경제력을 보충하려 하였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고구려인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지역은 요동반도에 발달된 곡창지대였을 것임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또 하나는 고구려인들이 당면했던 정치·사회적 여건을 생각해보자. 고구려는 지리적인 측면에서 서쪽의 중국과 국경을 인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고구려는 건국이후 멸망시까지 서쪽에 인접한 중국의 여러 정치세력과 대립과 갈등관계였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이는 고구려사의 성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은 서쪽에 인접한 여러 중국세력의 정치적인 변동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고구려가 정치적 독자성을 확보해가는 과정에서 요동지방에 위치한 중국 군현과의 관계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둘째로는, 고구려가 요동지방으로 진출할 수 있는 내부적인 역량이 성숙되었다는 점이다. 4세기 대에 이르러는 보다 강력해진 왕권중심의 집권력을 바탕으로 하여 여러가지 개혁을 추진하였다. 특히 4세기 중엽 소수림왕대 시행된 일련의 시책들(불교공인, 태학설립, 율령반포)은 고구려가 중앙 집권적 지배체제 정비를 뒷받침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내부적인 역량 축적을 바탕으로 하여 고구려는 보다 적극적으로 요동지방 진출정책을 추진할 수가 있게 되었다.

(2) 대외적인 배경

魏가 망하고 요동지방을 장악한 정치세력은 쯤이다. 진은 요동지방에 대한 지배를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하여 274년 이 지역에 平州라는 행정구역을 새로이 설치하였다. 즉 종래까지 중국의 동북방지역을 광범위하게 관할해오던 幽州를 둘로 나누어 그 동쪽지역에다가 平州를 설치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유주의 관할구역은 대체로 현 하북성의 동쪽지역에 해당되었다. 행정

적으로는 요서군과 북평군(중심지는 하북성 豐潤縣지역)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평주는 요동군, 현토군, 낙랑군, 창려군으로 구성되었는데 요동군의 양평현(현 길림성 요양시)에 治所를 두었다. 그 관할구역은 요하의 동쪽에 해당되는 요동지방을 중심으로 하여 한반도 그리고 요동에 인접한 대릉하 유역인 것으로 추정된다. 진은 평주를 행정적으로 관할하는 관리인 平州刺史를 파견하였고, 아울러 이민족 관계를 전담하는 東夷校尉를 두어 이민족과의 교섭관계에 힘을 기울였다. 요동지방의 동쪽에는 부여와 고구려, 서쪽 지역에는 모용씨가 자리 잡고 있었다. 모용씨는 북방의 선비족계통인데 진의 유주와 평주사이에서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던 정치세력이다. 특히 모용씨는 그 세력을 급격히 확장하면서 동쪽의 요동지방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정치집단이었다.

모용씨는 진의 요서군 및 요동군을 공격하는 한편 인접한 부여와⁶⁾ 고구려를⁷⁾ 공격하는 등의 강력한 세력집단으로 등장하였다.⁸⁾ 이와 같은 모용씨의 세력 확장은 대릉하 유역까지 진출하고 있어 이 지역에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진과의 마찰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모용씨의 세력 확장은 그 주변에 인접한 세력으로부터 경계를 받는 형국을 조성하였고, 또한 장차 고구려와의 충돌을 예고하게 되었다.

한편 이제까지의 요동지방에 대한 진의 행정적인 지배는 갑작스런 변화상을 보이게 된다. 진의 왕실에서 이른바 ‘八王의 亂’이 시작된 것이다. 291년부터 306년에 이르기까지 8명의 藩王이 권력을 놓고 치열하게 다투게 되면서 진은 급격히 쇠퇴하였다. 이로 인하여 결국 311년 진은 망하고 만다.

6) 285년 부여를 침략하여 일시적인 멸망상태에 이르기까지 하였다(『晉書』 권97, 列傳 67, 扶餘國).

7) 『삼국사기』를 보면 293년 모용위가 침입하자 烽上王이 新城으로 피신하였고, 이를 신성 태수이자 北部小兄인 高奴子가 물리쳤다고 한다. 296년에는 모용위가 고국원에까지 침입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삼국사기』 권17, 고구려본기5, 봉상왕 2년(293), 봉상왕 5년(296)).

8) 『晉書』 권108, 載記 8, 慕容廆傳.

특히晉 懷帝가 즉위할 무렵(306년)에 이르러, 진은 변방을 통치할 만한 여력마저도 없게 되었다.⁹⁾ 이에 따라 요동지역을 통치하는 평주자사와 동이교위는 점차 행정적, 군사적인 통치력을 발휘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 틈을 타고서 진의 주변에 있던 이민족 세력들이 붕괴하게 되었다. 진의 서쪽 및 북쪽에는 모용씨가 인접하고 있었고, 진의 동쪽에는 고구려, 진의 서북쪽에는 西拉木倫河(Sila Mu-lun河)를 중심으로 한 宇文氏가 세력을 형성하여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리고 서쪽으로 멀리는 요서의 난하주변에서 선비족 段氏와 前趙 劉氏의 장군인 石勒이 대두하였다. 요동과 요서 지방을 둘러싸고 형성된 이와 같은 여러 세력의 발호로 말미암아 晉세력은 요동군을 중심으로 크게 위축되어 있었다. 특히 진과 인접해있던 모용씨는 점점 진의 통치영역인 요동지방의 인근에까지 진출해 나갔다. 모용씨는 중국의 혼란을 피해 계속 유입해오는 수많은 한족 유랑민을 흡수하여 급속하게 국가적 기틀을 확립해 나갔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晉의 요동지역 지배에 일대 전환점을 가져오게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자치통감』에서 그 내용을 알아보면

처음에 東夷校尉 李臻은 王浚과 함께 晉 왕실을 위해 일하기로 약속하였다. …(中略)… 그런데 遼東太守 龐本은 평소부터 李臻과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틈을 타 李臻을 습격하여 살해하였다. …(中略)… (둘 사이의)내분 과정에서 이진에게로 도망갔던 別賀관직에 있던 왕탄은 모용의에게로 귀속해갔다. 이에 (晉의 懷帝는) 詔勅을 내려 李臻을 대신하여 封釋이란 인물을 東夷校尉로 임명하였다.¹⁰⁾

라 하여 平州의 치소이자 요동군의 치소인 襄平(오늘날 요녕성 遼陽市)에 함께 파견되어 있던 東夷校尉 이진과 遼東太守 방본 사이에 불화로 인한 살육전이 일어난 것이다(309년). 물론 晉에서는 東夷校尉 봉석과 遼東太守

9) 岡崎文夫, 『魏晉南北朝通史』, 弘文堂書房, 東京, 1932, 92-124쪽.

10) 『資治通鑑』 권87, 晉懷帝 永嘉 3년(309).

원점을 새로이 파견하여 혼란을 수습하려 하였으나, 요동군 지역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통치불능의 상태로 빠지게 되었다. 이 사건은 平州의 종말에 대한 전후사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 관계를 보다 상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동 사건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인 『晉書』¹¹⁾를 보면 이 사건 이후에 遼東의 근처에서 세력을 떨치고 있던 선비족(素連, 木津)이(동이교위)이진의 복수를 핑계 삼아 요동지방의 여러 현을 공략하고 土庶를 죽이고 약탈하였는데도 동이교위 封禪과 신임 요동태수 袁謙이 이들을 능히 제어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백성이 생업을 잃고 유망하여 모용외에게 귀부하는 자가 날로 이어 졌다고 한다. 이 틈을 타고 세력이 팽창일로에 있던 모용씨가 요동지방에 손을 뻗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즉 모용외는 요동군에서의 사건에 직접 간섭하여 素連, 木津 등의 선비족을 물리치고(311년), 그 백성을 극성으로 움긴 연후에 요동군을 세우고 돌아왔다고 한다.¹²⁾ 이 사건은 요동지방의 세력권을 모용씨가 실질적으로 주도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요컨대 모용외는 진의 '八王之亂'과 계속 이어진 '永嘉의亂'으로 진 왕실이 붕괴되었고, 아울러 요동지방의 내분으로 요동이 혼란에 빠진 틈을 이용하여 요동군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한편 요동지역에는 최비라는 새로운 지배자가 나타났다. 당시 중원에서 실권을 잡고 있던 王浚이 311년 자신의 장인인 崔攄라는 인물을 새로운 평주자사이자 동이교위로서 임명하여 요동에 파견하였던 것이다. 요서지방에서부터 계속 압박해오고 있는 모용외와 요동지방의 새로운 지배자로 등장한 최비의 관계는 갈등관계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314년 왕준이 죽자 최비는 후견인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요동지방에서 존립해야만 하는 최비는

11) 『晉書』 권108, 載記 8, 慕容廆傳.

12) 또 다른 기록인 『資治通鑑』 권87, 晉懷帝 永嘉 5년(311)조를 보면 모용외가 2 部の 무리를 모두 항복시키고 백성 3千家를 빼앗았으며, 일찍이 모용외에게 귀부하였던 자들은 모두 (요동)군에다 부속시켰기 때문에, 요동군이 존속하게 되었다고 기록하였다.

모용외를 견제하기 위하여 주변세력과의 연합을 도모하였다. 319년 최비는 모용씨 주변에 있던 고구려, 선비계통의 우문부, 단부와 연합하여 모용씨를 제압하려고 하였다. 최비는 삼국과 연합하여 모용외의 근거지인 棘城(현 요녕성 錦州市부근)을 포위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모용외의 방해공작과 연합국간의 이견으로 삼국연합이 와해되고 말았다. 결국 모용씨 공격에 실패한 최비는 기병을 이끌고 고구려로 망명하였다.¹³⁾ 최비의 망명으로 지배자가 없어진 요동은 다시 혼란에 빠졌다. 이에 모용외는 아들 모용인을 요동에 주둔케 함으로서 혼란을 수습하였다. 이로부터(319년) 요동지방은 모용외의 직접적인 통치조직 속으로 편입되었다. 모용씨는 이제 요동지방을 완전하게 장악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은 주변에 있던 정치세력 특히 고구려와의 충돌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3. 고구려의 요동지방 진출기도와 모용씨

고구려가 요동지방 진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정치적인 배경은 무엇일까? 그것은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요동지방의 세력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기 때문이다. 고구려는 요동지방에서 정치권력의 변화상을 감지하고 요동진출 정책을 능동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고구려가 요동지방에 대한 진출의욕을 나타내기 시작하게 된 직접적인 요인은 쯔의 내부혼란 즉 '八王之亂'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291년경부터 시작된 진왕실의 혼란으로 말미암아 진은 급격히 쇠퇴하였다. 물론 고구려가 밖으로 진출할 수 있는 내부적인 잠재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고구려는 국제정세의 변화를 면밀하게 주시하고 이에 능

13) 『삼국사기』를 보면 晉의 平州刺史 崔慈가 도망해 왔다고 기록되어 있다(『삼국사기』 권 17, 고구려본기 5, 美川王 20년(319)).

동적으로 대처해 나갔다. 평왕실의 내분으로 인하여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급격히 약화되었고, 이를 틈타 요서지방을 중심으로 모용씨가 새로이 등장하여 요동지방에 세력을 뻗치는 상황을 주목하였다. 고구려는 모용씨의 등장에 대한 요동군의 대응이 점차 소극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감지하고 인접한 중국군현에 대하여 적극적인 공세로 압박하기 시작하였다.

고구려의 첫 번째 공략대상이 된 것은 현토군이었다. 미천왕은 302년 군사 3만을 이끌고 현토군을 침입하여 8,000명을 포로로 잡아 평양으로 옮겨 갔다.¹⁴⁾ 이때의 현토군은 오늘날 요녕성 심양의 동쪽에 위치한 撫順市부근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⁵⁾ 그렇다면 현토군은 당시 요동군의 동북방에 위치하고 있던 것이 된다.

한편 309년 요동군에서는 큰 사건이 발생하였다. 요동군의 치소가 있던 양평(현 요녕성 요양시)에 함께 파견되어 있던 東夷校尉와 遼東太守 사이에 불화로 인한 살육전이 일어난 것이다. 짚은 이 사건을 수습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대신에 그 서쪽에서 세력을 잡고 있던 모용외의 세력이 점차 강화되었다. 한편으로는 요동군의 살육전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된 후 최비라는 인물이 새로운 동이교위로서 부임해 왔다. 이로써 요동군의 상황은 최비와 모용외가 서로 대치하는 형국이였다.

고구려는 요동군에서 발생한 정세변화를 면밀하게 주시하고는, 그러한 혼란상을 능동적으로 활용하였다. 이제 고구려는 요동지방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우선 미천왕은 311년 장수를 보내어 요동의 서안평을 습격하여 빼앗아 버렸다.¹⁶⁾ 이곳은 압록강의 하류에 해당되는데 한

14) 『삼국사기』 권17, 고구려본기 5, 美川王 3년(302).

15) 현토군 城의 위치에 대하여는 몇 가지 학설이 있는데 대체로 現 요녕성 撫順市부근으로 비정되고 있다. 이는 또 두 가지 학설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무순시 한북편에 소재한 공원의 산자락에 자리잡고 있는 勞動公園說이다. 또 다른 견해는 무순시에서 서쪽으로 심양시로 통하는 중간지점쯤에 소재한 上伯官屯古城說이 있다(余昊奎, 『高句麗城 II』, 國防軍史研究所, 1999, 177-181쪽 참조).

16) 『삼국사기』 권17, 고구려본기 5, 美川王 12년(311). 서안평은 漢대 이래 요동군의 속현인 서안평 현으로서, 그 위치는 압록강 하류에 소재한 요녕성 丹東市부근이다.

반도와 요동군을 연결해주는 교통로 상에 위치한 전략적인 요충지이다. 또한 고구려가 서해바다에 진출하여 장악하기 위한 거점지이기도 하다. 고구려는 이로서 요동군과 한반도 내의 낙랑군, 대방군을 연결해주는 교통로를 차단시켰다.

이후 고구려는 고립무원에 빠진 낙랑군, 대방군을 공격하여 멸망시켰다. 즉 미천왕은 313년 낙랑군을 습격하여 남녀 2천여 명을 사로잡아 돌아왔다.¹⁷⁾ 이어 그 이듬해에는 남으로 대방군을 침략하였다.¹⁸⁾ 313년, 314년 고구려의 낙랑군과 대방군에 대한 침입기사는 평양부근에 존재하던 낙랑·대방군에 대한 멸망기사로서 알려져 있다. 이로서 수백 년간 지속되어 오던 한반도 내부의 중국 군현은 없어지게 되었다. 고구려는 새로이 편입된 낙랑·대방군 지역에 대한 지배정책을 신중하게 추진해 나갔다.¹⁹⁾

한반도와 그 주변에 있던 중국 군현 세력을 제압하게 된 고구려는 몇 년 전에 큰 타격을 입힌 바 있던 현토성을 다시 공략하였다. 즉 315년 미천왕은 현토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는데, 많은 사람을 죽이고 사로잡았다고 한다.²⁰⁾ 고구려는 썸의 변방 중에서도 가장 동쪽에 설치된 군현인 현토군마저도 함락시켰다. 고구려의 현토군 함락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토군은 요동군과 인접해 있어 요동군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에 해당된다. 이제 고구려는 서남방에 인접해있는 요동군을 호시탐탐 노릴 수 있는 전략적 근거지를 확보한 것이다. 고구려는 이와 같은 군사적인 힘을 바탕으로 하여 이제까지 만주와 한반도지역을 행정적으로 통치해오던 중국 군현의 중심적 역할을 해오던 요동군에 대한 압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게 되었다.

한편 요동지방의 정치상황은 319년에 이르러서 또 다른 결말을 빚게 된다. 최비가 주변의 삼국(고구려, 우문씨, 단씨)을 끌어들이며 모용위를 제압

17) 위의 책, 美川王 14년(313).

18) 위의 책, 美川王 15년(314).

19) 공석구, 「고구려의 남진과 벽화고분」, 『한국고대사연구』 20호, 한국고대사학회, 2000 참조.

20) 『삼국사기』 권17, 고구려본기 5, 美川王 16년(315).

하려 하였으나 실패하고, 최비가 고구려로 망명하였던 것이다. 한편 이 사건을 통하여 고구려의 요동지방에 대한 진출의도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삼국사기』 기록을 인용해 보자.

(고구려의)장군 如拏가 河城에서 진을 치고 있었는데 (慕容)廆가 장군 張統을 파견하여 이를 습격하여 사로잡고, 그의 部衆 천여 가를 포로로 하여 棘城으로 돌아갔다.²¹⁾

모용씨에 대한 연합공격이 결렬되자 최비가 고구려로 도망해간 이후에도, 고구려는 파견하였던 군대를 철수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일전에 최비가 약속한바 있던 모용씨를 멸망시키면 그 땅을 나누어준다는 것에 대한 고구려의 관심일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고구려는 오히려 모용외가 파견한 군대의 습격을 받아 1,000여 호가 포로로 잡혀가는 등의 패배를 당하였다.

최비의 고구려 망명사건이후 요동지방은 모용씨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려는 계속 요동지방에 대한 공략을 멈추지 않았다. 이 당시의 상황을 『삼국사기』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① (미천)왕은 여러 차례 군대를 파견하여 요동을 침범하였다. 이에 慕容廆가 慕容翰·慕容仁을 파견하여 토벌하였다. (미천)왕이 和盟을 청하니 翰과 仁이 이내 철수하였다.²²⁾

② (미천왕이) 군대를 보내어 요동을 침범하니 慕容仁이 맞아 싸워 크게 쳐부셨다.²³⁾

위의 사료를 보면 미천왕은 모용씨의 요동지방 지배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발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고구려의 시도는 번번이 모용씨

21) 위의 책, 美川王 20년(319).

22) 『삼국사기』 권17, 고구려본기 5, 美川王 20년(319).

23) 위의 책, 美川王 21년(320).

의 강력한 방어에 의하여 실패하였음을 알 수 있다. 미천왕이 이처럼 요동 지방으로 진출하려고 노력한 것은 요동지방의 권력공백이 주요한 배경이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전왕인 봉상왕대 모용씨가 침략하여 (西川)王墓를 도굴하는 등의 만행을 저지르는데 대한²⁴⁾ 보복전의 성격도 없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고구려의 요동공략 작전은 번번이 모용씨의 강력한 방어에 의하여 실패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구려는 힘의 열세를 느끼고 이를 외교적인 측면에서 해결하려고 시도하였다. 미천왕은 330년 당시 모용씨의 서쪽방면에서 세력 확장을 추진하고 있던 後趙와의 연합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즉 후조로 사신을 파견하면서, 싸리로 만든 화살(楛矢)을 선물로 보냈던 것이다.²⁵⁾ 이러한 미천왕의 외교정책은 모용씨를 양쪽에서 위협하기 위한 것이었다. 얼마전 최비가 시도했던 것처럼 모용씨의 전선을 동, 서로 분열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고구려의 이와 같은 시도는 모용씨에게 커다란 위협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한편으로 고구려는 모용씨의 침략에 대비하였다. 335년 모용씨와 인접한 국경의 길목에 성곽을 축조하여 모용씨의 침략에 대비하였다. 즉 요동에서 고구려로 진입하는 전략적 요충지에다가 新城(현 요녕성 撫順市 북방의 고이산성)을 축조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이듬해인 336년에는 사신을 양자강 이남에 있던 東晉에 파견하였다. 이러한 고구려의 행위는 압박해오는 모용씨를 의식한 외교적인 시도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24) 『삼국사기』 권17, 고구려본기 5, 烽上王 2년(293년) 및 봉상왕 5년(296년).

25) 『삼국사기』 권17, 고구려본기 5, 美川王 31년(330)에 “遣使後趙石勒 致其楛矢”.

後趙의 王 석륵(石勒)은 갈족출신으로서 319년 前趙로부터 자립하였고, 329년에는 전조를 멸하고 그 연고지였던 화북(華北)일대를 지배하고 있었다. 고구려는 화북지역 일대의 정세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새로운 지배자로 부상한 후조와의 연결을 도모한 것이다. 이러한 후조와의 연결은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海路를 통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고구려의 수군력이 발해만 일대까지 교통할 수 있도록 성장하였음을 의미한다.

요동지방을 장악한 모용씨는 국가체계를 성립시켰다. 모용외의 아들인 모용황은 내분을 수습하고서 337년 燕王을 칭하였으니 바로 前燕의 시작이다. 전연은 본격적으로 사방에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고구려는 후조로부터 협력을 제의받았다. 후조는 양곡 30만 섬을 배 300척에다 실어 고구려로 수송했던 것이다.²⁶⁾ 後趙는 338년 난하유역에 있던 段氏를 공격 점령하면서 慕容氏와 국경을 접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후조는 동쪽으로 인접한 모용씨 방면으로의 진출을 시도하였다. 후조는 338년 모용씨의 도성인 棘城을 포위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였으나, 공격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후조에 협력했던 전연의 관료일부가 고구려로 도망하기도 하였다. 후조는 재차 전연을 도모하기 위하여 양면작전을 구상하였다. 즉 해안가에 양곡 300만 섬을 비축케 하는 한편, 배 300척에 양곡 30만 섬을 실어 고구려에 보내도록 하였다. 후조는 수군을 통한 양면작전과 함께 고구려를 끌어들이려고 노력하였던 것이다.²⁷⁾ 이때 고구려가 후조에 어떻게 협조하였는지 그 내용을 알 수는 없다. 하지만 고구려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였을 가능성은 다음에 제시될 『삼국사기』(고국원왕 9년)기사에서 추정해 볼 수는 있다.

결국 後趙의 慕容氏 공격은 실패로 끝났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후조는 급속히 쇠퇴하게 된다. 하지만 후조와 고구려가 연합하려고 시도한 사건은 모용씨(前燕)를 크게 자극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하여는 『삼국사기』에

燕王 慕容皝이 쳐들어와 그 군대가 新城에 들어 닳쳤다. 이에 (고국원)왕이 和盟을 청하니 곧 돌아갔다.²⁸⁾

26) 『資治通鑑』 권96, 晋成帝 咸康 4년(338) 참조.

27) 李基東, 「高句麗史발전의 劃期로서의 4世紀-慕容'燕'과의 尙쟁을 통하여」, 『고구려·발해 연구』 I (강좌미술사 10), 1998, 19쪽.

28) 『삼국사기』 권18, 고구려본기 6, 故國原王 9년(339).

라 한 기록에서 짐작할 수 있다. 이 기사는 후조의 공격을 막아낸 전연이 고구려에 대한 보복전으로서의 성격이 있다. 즉 고구려와 후조간의 양면작전을 시도했던 그 이듬해(339)에 전연왕 모용황이 직접 新城에까지 공격해왔던 것이다. 이에 고국원왕이 화해요청을 하자, 모용황이 군대를 돌이켰다는 내용이다.

고구려는 모용씨의 침입에 위협을 느끼고 곧 수습에 나섰다. 고구려는 후조를 격파하면서 더욱 강성해진 전연에 대하여 상당한 부담을 느꼈던 것 같다. 이 사건 이후 고국원왕은 세자를 전연 모용황에게 조공케 하는 등 저자세외교를 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⁹⁾ 어쨌든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고구려는 이제까지 요동지방을 사이에 두고 대립해왔던 모용씨에 대한 군사적 우세를 인정하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으로 모용황이 쉽게 군대를 철수하였던 배경을 생각해 보자면 당시 고구려가 외교적으로 동진이나 후조, 우문부를 비롯한 여러 세력들과 통하고 있던 데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하지만 고구려는 국경지방에서 계속 모용씨의 군대와 충돌하였다. 341년에 모용황은 전연의 맹장인 모용각을 평곽³⁰⁾에 주둔케 하였다. 평곽에 주둔한 모용각은 여러 차례 고구려 군을 격파하였다는 『資治通鑑』(권96, 晋成帝 咸康 7년) 기록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평곽은 前漢代 鹽官과 鐵官이 설치되었던 곳으로 군사적, 경제적 요충지이다. 평곽은 진대에 이르러 폐지되었으나 모용씨에 의해 다시 부각되고 있다. 고구려가 평곽지역을 누차 침범한 것은 이 지역에 다량으로 매장된 鐵과 연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³¹⁾

29) “王遣世子 朝於燕王號”(『삼국사기』 권18, 고구려본기 6, 故國原王 10년(340)).

30) 평곽이란 지명은 오늘날 요녕성 개주시 남쪽의 熊岳鎮 부근에 해당된다. 그 동쪽에는 개현고성이 있는데 漢 대의 토성이라고 한다. 토성주변에서 후한 대의 무덤이 다량 발굴되었다고 한다(孫進己·馮永謙編, 『東北歷史地理』 제1권, 1988, 294쪽, 379쪽 및 같은 책 제2권의 64-65쪽).

31) 李龍範, 『高句麗의 遼西進出 企圖와 突厥』, 『史學研究』 1-4, 1959, 50-53쪽.

고구려는 전연에 대하여 조공하는 등의 유화책을 쓰는 한편으로 계속하여 요동지방으로의 진출을 모색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집요하게 추진되고 있는 고구려의 요동지방 진출 노력은 전연 모용씨에게 커다란 위협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

4. 고구려의 좌절과 모용씨

고구려의 요동지방 진출노력은 큰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前燕의 모용황은 341년 동진으로부터 요서 및 요동지방에 대한 지배권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³²⁾ 동진의 성립이후 양자강이북 지역은 권력의 진공상태에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었다. 342년 요서지방의 중심지였던 용성(現 요녕성 朝陽市 일대)으로 천도한 모용황은 이제 중원으로의 진출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제 모용씨를 위협하는 세력은 동쪽의 고구려와 서쪽에 인접한 宇文氏였다. 이때 段氏와 宇文氏에서 오랜 기간 체류한 바 있던 모용한이 돌아와 모용황에게 자신이 체득한 정보, 즉 고구려의 강성함과 우문부와 고구려의 긴밀한 연결 관계를 보고하였다. 모용한은 모용씨가 중원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문씨와 고구려를 제거해야 하는데, 우선 고구려를 공격한 후에 우문씨를 제거하자는 의견이었다. 고구려를 먼저 제압함으로써 후방인 동쪽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자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모용한의 생각은 중원진출을 노리는 모용황의 의중과 일치하였고, 결국 그 건의는 채택되었다.

전연은 고구려 공격을 준비하였다. 전연왕 모용황은 우선 慕容翰과 慕容霸를 선봉으로 삼아 고구려를 공격하도록 하였다. 이들은 전연의 맹장이었다. 특히 모용한은 고구려를 잘 알고 있었으니, 그는 일찍이 요동에 장기간

32) 『資治通鑑』 권96, 晉成帝 咸康 7년(341).

주둔한 경험이 있었을³³⁾ 뿐만 아니라 우문씨에 체류할 때부터³⁴⁾ 이미 고구려의 사정을 파악하고 있던 인물이었다.

전연은 고구려를 공략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다. 당시 前燕에서는 고구려 공격을 위하여 사전에 고구려의 지세, 교통로, 군사작전 등을 파악하고 있었던 듯하다. 前燕은 고구려를 공격하는 길은 2가지 루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나는 좁고도 험한 산길을 통과해야 하는 남쪽 길(南道), 또 다른 길은 넓고도 평탄한 길을 따라 가는 북쪽 길(北道)이다.³⁵⁾ 남쪽 길은 무순에서 渾河방면(이 루트에는 현토성과 신성, 석대자산성 등이 분포되어 있다)⇒ 蘇子河방면(이 루트에는 철배산성, 오룡산성, 櫃子石산성, 구노성이 배치되어 있다)⇒ 富爾江방면(이 루트에는 패왕조산성, 전수호산성 등이 분포되어 있다)⇒ 新開河방면(이 루트에는 망파령관애가 배치되어 있다)을 거쳐 국내성으로 통하는 루트이다. 북쪽 길은 무순에서 혼하방면으로 좀 더 거슬러 올라가 淸原방면(이 루트에는 남산성, 산성자산성 등이 분포되어 있다)⇒ 柳河방면(이 루트에는 나통산성이 분포되어 있다)⇒ 통화현방면(이 루트에는 이도구문관애, 석호관애, 건설산성, 자안산성, 적백송고성 등이 분포되어 있다)⇒ 葦沙河방면(이 루트에는 關馬墻관애와 大川초소등이 배치되어 있다)⇒ 국내성으로 통하는 루트이다.

전연은 고구려가 주력군을 넓고도 평탄한 루트인 북쪽 길에 배치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전연은 고구려의 의표를 찌르고자 주력부대를 남쪽 길로 배치하였다.慕容氏의 대대적인 고구려 공격사실에 대하여는 『삼국사

33) 『資治通鑑』 권91, 晋元帝 太興 4년(321).

34) 『資治通鑑』 권96, 晋成帝 咸康 4년(338).

35) 남도와 북도의 루트에 대한 구체적인 경로에 대하여는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가 있었는데 이중에서도 남도(渾河·蘇子河 합류점→渾河→蘇子河→富爾江→渾江→新開河→國內城), 북도(渾河·蘇子河 합류점→渾河상류→柳河→輝發河→渾江→葦沙河(淸河)→國內城)로 보는 견해가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된다(修達, 「關於高句麗南北交通路」, 『博物館研究』 1993-3, 34-38쪽). 남도와 북도에 대한 연구사적인 검토에 대하여는 田中俊明, 「高句麗前期·中期の遼東進出路」(武田幸男編), 『朝鮮社會の史的展開と東アジア』, 山川出版社, 1997 참조.

기』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11월에 (燕王 慕容) 皝이 친히 날쌔 병사 4만을 거느리고 南道로 나아가면서 慕容翰·慕容霸를 前鋒으로 삼고 별도로 長史 王寓등에게 병사 1만5천을 거느리고 北道로 나아가게 하여 고구려를 침공하였다. (고국원)왕은 아우 武에게 精兵 5만을 주어 北道를 막게 하고 왕 자신은 약졸들을 거느리고 南道를 방어하였다. 慕容翰 등이 먼저 (南道로)와서 싸움을 하고 皝이 대중을 거느리고 뒤따라 이르니 우리 군대가 큰 패배를 당했다. 左長史 韓壽가 我將 阿弗和度加를 베니 諸軍이 승세를 타고 마침내 丸都에 입성하였다. (고국원)왕이 홀로 斷熊谷으로 도망했지만 將軍 慕容暉가 王母 周氏와 王妃를 사로잡아 갔다. 그때 마침 王寓 등이 北道에서 싸우다가 모두 敗沒하였으니 이내 皝은 더 이상 추격치 않고 사절을 보내 왕을 불렀으나 왕은 (斷熊谷에서) 나오지 않았다. 皝이 장차 돌아가려함에 韓壽가 이르기를 '高句麗땅은 지키기 어렵고 그 왕은 도망하고 백성들은 산골짜기에 숨었으니 大軍이 철수하면 반드시 다시 모여 남은 무리들을 수습할 것이므로 오히려 걱정거리가 될 터이니 청컨대 (王)父의 시신을 (과)실고 그 생모를 사로잡아 갔다가 고구려왕이 항복함을 기다려 도로 내주고 은혜와 신의로써 무마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하였다. 皝이 그 말에 따라 美川王廟를 파내어 그 시신을 (수레에)싣고 또 그 창고에 있는 累世의 보물을 약탈하고 남녀 5만여 인을 사로잡고 궁실을 불태우고 丸都城을 허물어 버리고 돌아갔다.³⁶⁾

위의 기사는 침략과정에서부터 결과까지를 기록하고 있다. 이 전쟁은 전연의 치밀하게 계획된 작전에 의한 승리였음을 알 수가 있겠다. 전연은 모용한의 주장대로 주력부대(4만명)는 南道를 통하여, 왕우가 거느린 偏師(1만5천명)는 北道를 통하여 공격하였다. 전쟁은 전연의 예상대로 진행되었다. 고구려가 북쪽 길에 주력부대를 배치할 것이라는 전연측의 예상은 적

36) 『삼국사기』 권18, 고구려본기 6, 故國原王 12년(342). 이 기사는 『資治通鑑』에서 초록한 것이다.

중하였다. 고구려는 전연의 공격사실을 인지하고서 주력부대(5만명)를 北道에 배치하였고, 南道에는 고국원왕 자신이 일부의 약한 병사를 일부 이끌고 침략에 대비하였던 것이다. 당시 전연을 상대한 고구려군의 위세도 만만치 않았다. 5만 6천에 달하는 前燕軍에 대항한 고구려군의 병력도 그에 못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고구려는 전술적인 측면에서 실패하였다. 전연의 공격에 대한 대응전략을 잘못 수립한 것이다.

전쟁의 양상은 전연의 예상대로 진행되었다. 고국원왕이 거느린 일부의 약졸들은 전연의 주력군을 막아낼 수가 없었다. 전연군은 고구려군을 격파하고는 곧장 수도인 국내성으로 직행하였다. 전쟁에서 패한 고국원왕은 단웅곡으로 숨어들었다. 그러나 전연의 추격군에 의하여 왕모 주씨와 왕비가 포로로 붙잡히게 되었다. 이 전쟁에 대하여 『晉書』(권109, 재기9 모용황)에는 남도로 침입한 전연군과 고국원왕이 충돌한 지점을 木底라고 기록하였다. 목저는 木底城이다.³⁷⁾ 한편 고국원왕의 동생인 武가 거느린 고구려의 주력군(5만)은 왕우가 이끄는 1만 5천의 전연군을 크게 물리쳤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고구려는 전연의 침략에 막대한 타격을 받았다. 전쟁은 전연의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의 전후처리 장면을 보면 전연군의 승리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국원왕이 도망하여 아직 항복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또한 북도로 들어온 전연군을 궤멸시킨 고구려 주력부대가 견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언제든지 국내성으로 진입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다. 한편으로 주력군을 총동원한 전연은 군대를 고구려에 장기간 지체시킬 여유가 없었다. 서쪽에 인접한 우문씨가 고구려 공격사실을 알고 어떻게 대응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모용황은 군대를 돌이키려 하였다. 하지

37) 木底城의 위치에 대하여는 興京老城과 撫順을 연결하는 지점인 木奇일대에 비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今西春秋, 『高句麗の南北道と南蘇・木底』, 『靑丘學叢』 22, 1935). 목기일대에는 五龍山城, 櫃子石산성 등이 있어 목저성으로 비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서쪽에 위치한 철배산성이나 五龍山城등을 남소성으로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만 고구려가 언제 다시 공격해 올지 알 수 없었다. 이에 韓壽라는 부하가 모용황에게 대책을 제시하기를 '고구려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고구려 왕도 도망가 숨어 있는데, 우리가 군대를 돌이키면 군사를 모아 보복할 것입니다. 그러하니 고구려왕의 부모를 포로로 잡아 철수하면 고구려가 함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모용황은 부하의 건의에 따라서 철수 작전을 진행하였다.

고구려는 전연과의 전쟁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³⁸⁾ 따라서 고구려는 꾸준하게 추진해 왔던 요동지방 진출 정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우선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국가의 재건과 포로로 잡혀간 부모 등에 대한 송환 등이었다. 이 시기 고구려의 외교정책을 알아보면 전연에 대하여 화친정책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³⁹⁾ 343년 王弟를 전연에 입조시켜 美川王의 유해를 돌려받았고, 349년에는 고구려로 도망해 온 바 있던 前東夷護軍 宋皇을 돌려보냈다. 355년에 이르러 급기야는 전연의 봉작을 받기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제 전연은 고구려에 대한 군사적 부담을 떨칠 수가 있었고⁴⁰⁾ 봉작을

38) 고구려는 부왕인 美川王의 시체가 파헤쳐져서 실려 갔고 王母와 왕비 및 남녀 5만여 인이 포로로 잡혀갔으며, 丸都城이 파괴당하는 등 쉽게 만회하기 어려운 정도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

39) ①(고국원)王이 동생을 보내어 燕에 稱臣 入朝하고 珍異한 물건을 전하였는데 그 수효가 千을 헤아렸다. 燕王은 이내 父(미천왕)의 시신을 돌려보냈으나 母(주씨)는 그대로 잡아 두어 볼모로 삼았다(『삼국사기』 권18, 고구려본기 6, 故國原王 13년(343)).

②(고국원왕)王은 前東夷護軍 宋皇을 燕으로 돌려보냈다(위의 책, 故國原王 19년(349)).

③(고국원)王은 사신을 燕에 보내어 볼모를 주고 조공하면서 王母의 반환을 청하였다. 燕王 僞이 허락하고 殿中將軍 刀龕을 시켜 王母를 호송케 하고 왕에게 征東大將軍營州刺史 樂浪公이란 작위를 봉하고 고구려왕은 前과 같이 하였다(위의 책, 故國原王 25년(355)).

40) 하지만 전연의 입장에서 고구려의 존재는 여전히 배후의 위협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357년 前燕이 慕容垂(후일 後燕王)를 요동의 襄平에 파견하였다는 기록(『十六國春秋前燕錄』, “以吳王垂爲東夷校尉 平州刺史鎮遼東”)에서 알 수가 있으며, 이러한 조치가 고구려를 대비케 한 것임을 짐작케 한다.

계기로 하여 그 동안 불모로 잡았던 王母를 송환해 주었다. 한편 고구려는 사정상 요동진출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후 고구려의 영역확장 정책은 남진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고국원왕이 백제에 패하여 전사하였음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그런데 요동지방의 정치상황이 급변하였다. 전연이 370년 前秦이라는 새로운 세력에 의하여 멸망당하면서, 요동지방의 세력권은 전진에게로 귀속되었다. 한편 고구려는 369년 고국원왕의 전사라는 국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백제전에 온 역량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고구려로 하여금 요동지방에서 새로운 힘의 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어렵게 하였다. 국제 정세는 고구려로 하여금 요동지방의 새로운 지배자로 등장한 전진과의 갈등보다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전개되었다. 또한 중국의 西方에서 등장하여 신속하게 화북지방을 점령하게 된 전진으로서도 중원 경영과 東晉문제가 급박한 관계로, 고구려와의 새로운 갈등을 원치 않았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이 맞물려 양국 간에는 서로 우호적인 관계⁴¹⁾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었다.

5. 고구려의 요동지방 확보와 모용씨

고구려는 3세기에 이르러 요동진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고구려의 요동진출 정책은 모용씨와의 대립과 치열한 갈등속에서 전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고구려는 요동진출 정책을 한 순간 포기해야 하는 좌절을 겪

41) 前燕은 불과 2개월 만에 수도인 鄴城에서 요동지역까지를 상실하였다. 이러한 전진의 강력한 등장을 고구려는 심각하게 인식하였던 것 같다. 고구려는 전연의 太傅였던 慕容評이 고구려로 도망해오자 이를 잡아 전진으로 돌려보냄으로서 전진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하였다. 또한 전진은 요동지방이 안정되자 고구려에 사절과 승려 순도를 보내는 등 고구려와의 화해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다.

기도 하였다. 하지만 고구려에게는 요동지역이 국가의 성장과 발전에 반드시 필요하였다. 지속적으로 추진되던 요동진출 정책은 마침내 4세기 후반 경에 이르러 실현된다. 그 직접적인 배경은 급변하는 중원의 정치상황 변화와 연관되어 있다. 지금까지 요동지방을 지배해왔던 전진이 갑자기 멸망해 버렸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고구려와 전진은 내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전진의 강력했던 힘은 383년 동진과의 전쟁에서 대패하면서 급격히 쇠퇴하였다. 이 틈을 타고서 모용수(前燕王 모용황의 第 5子)라는 인물이 전진을 이탈하여 반기를 들었고, 385년에는 中山(現 河北省 定縣)에서 後燕을 건국하였다. 이후 북중국 일대는 급속하게 후연의 세력권으로 편입되어 갔다.

이에 따라 요서지방의 상황도 급격히 변화하였다. 384년경부터 요서지방에서는 前秦과 모용씨 간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그 당시 양국이 충돌했던 사료를42) 검토해보면 전진이 동진에게 참패한 직후에 모용씨가 384~385년 전진의 幽州(薊: 현재의 北京부근) 및 平州(龍城: 현 요녕성 朝陽市)를 공격하였다. 즉 후연은 전진의 패배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요서지방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385년 2월 후연은 요서지방을 장악하고 대방왕 모용좌를 용성에 주둔시켰다.

그러면 당시 요동지방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일찍이 前秦은 고구려와 우

42) ①(前)秦의 幽州刺史 王永과 平州刺史 符冲이 二州의 무리를 이끌고 燕을 공격하니 燕王 垂는 平朔將軍 平規를 보내어 永을 공격케 하였다. 永은 昌黎太守 宋敞을 보내어 范陽에서 맞아 싸웠으나 敞의 군대가 패함에 따라 平規는 薊城의 남쪽에까지 진격하였다(『資治通鑑』 권105, 晉孝武帝紀 太元 9년(384)).

②(後)燕의 帶方王 佐와 寧朔將軍 平規가 함께 薊를 공격하여 王永의 군대를 여러 번 패배시켰다. 2월에 永은 宋敞을 보내어 和龍과 薊城의 궁실을 불사르게 하는 한편 三萬의 무리를 거느리고 壺關으로 도망하니(慕容) 佐 등이 薊에 入城하였다(위의 책, 晉孝武帝紀 太元 10년(385)).

③(燕王 垂는) 帶方王 佐로 하여금 龍城에 주둔케 하였다(위의 책, 晉孝武帝紀 太元 10년(385)).

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북지방 지배의 중심을 요동지방이 아니라 요서지방에 두고 있었다.⁴³⁾ 이때의 요동지방은 고구려와의 우호적인 관계로 전진의 관심에서 떨어져 있었던 것이다. 관련하여 384~385년간에 벌어진 전진과 후연간의 세력투쟁 속에서도 요동지방의 상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385년 요서지방을 장악한 모용씨는 계속하여 요동지방까지 장악하려고 시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고구려는 이와 같은 전진의 몰락 그리고 요서지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진과 후연간의 갈등관계를 면밀하게 주시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고구려는 요동 및 요서지방의 권력교체기라는 상황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요동지방으로 진출하였다. 이 사실을 『삼국사기』에서 인용해 보면

여름 6월에 (고국양)왕은 4만의 병사를 거느리고 요동을 습격하였다. 이에 앞서 燕王 (모용)垂는 帶方王 佐로 하여금 龍城을 지키게 한 바 있었다. (모용)佐는 고구려군이 遼東을 습격하였다는 말을 듣고 司馬 郝景을 보내어 구원토록 하였으나 우리 (고구려)군대가 쳐부수고는 마침내 遼東·玄菟를 함락하고 남녀 1만 명을 포로로 붙잡아 돌아왔다.⁴⁴⁾

라 하여 고구려가 385년 6월 요동군을 습격하여 점령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다. 고구려 고국양왕은 4만의 병력을 이끌고 요동을 습격하였다. 모용씨는 요동군이 습격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급히 장수를 파견하였으나 오히려 고구려군에게 패배하였던 것이다. 고국양왕은 龍城(현 요녕성 朝陽市)으로부터 파견된 후연군을 물리치고는 요동군뿐만 아니라 인접한 현토군마저도 함락시켰다. 고구려군은 요동·현토군에서 포로 1만 명을 사로잡아옴으로서 주력부대를 철수시켰다.

43) 전진에서는 380년 유주자사 洛의 반란을 진압한 직후에 유주를 분할하여 平州를 설치하였다. 이때 유주의 치소는 薊이고 평주의 치소는 龍城이다. 이 시기 요동지방의 사정에 대하여는 사료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44) 『삼국사기』 권18, 고구려본기 6, 故國壤王 2년(385).

이처럼 고구려가 요동군 지역을 전격적으로 점령할 수 있었던 배경을 생각해보자면, 당시 후연이 요동지방을 완전하게 장악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고구려의 요동공격이 후연의 용성점령 4개월여 만에 이루어졌던 관계로 요동지방을 정비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고구려가 요동공격을 시도한 사건은 慕容皝의 국내성 攻陷사건 이후 실로 40여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이 당시 고구려의 후연공격에 대하여 『資治通鑑』의 胡三省 註에는 ‘당시 後燕은 高句麗를 제압할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하였듯이⁴⁵⁾ 당시 상황은 강력한 고구려군과 아직 요동지방을 완전하게 장악하지 못한 후연과의 싸움이었던 것이다. 고구려가 처음으로 요동지방을 확보한 이후 이 지역을 지키려는 고구려와 빼앗으려는 중국의 여러 왕조의 치열한 쟁탈전이 지속되었다.

한편 고구려가 요동지방을 확보한 이후 後燕은 빼앗긴 요동지역을 되찾으려고 시도할 만한 여유가 없었다. 그 이유는 후연의 내부사정 때문이었다. 고구려가 요동지방을 함락시킨 다음 달(7월)에 요서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났던 것이다. 즉 후연의 建節將軍이었던 徐(餘)巖이라는 인물이 하북성과 요서지방을 배경으로 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얼마 후 반란군은 세력이 위축되어 요서지방의 令支라는 곳에 주둔하고 있었다. 반란은 몇 개월간이나 지속되었다. 후연은 마침내 내부반란을 진압하고는 계속 군대를 진격하여 고구려가 장악한 요동지방에 대한 공격에 착수하였다.⁴⁶⁾ 이는 고구려가 요동·현토군을 점령한 지 약 5개월만의 일이었다. 이 반격에서 後燕은 요동·현토군을 수복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분석해보면, 후연은 고구려에 빼앗겼던 요동·현토군을 수복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전연 때에 있었던 적극적인 군사적 대응

45) 『資治通鑑』 권106, 晋孝武帝 太元 10년(385) 6월의 註 참조.

46) 『晋書』 권123, 載記 23, 慕容垂傳.

慕容農 攻剋令支 斬徐巖兄弟 進伐高句麗 復遼東 玄菟二郡 還屯龍城.

방식(後趙와의 연합에 따른 新城공격, 宇文王 일두귀 문제를 둘러싼 남소성 함락)과는 분명히 구분된다. 이는 후연이 적극적으로 고구려를 공격하여 응징할 만한 여유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한편으로는 고구려의 국제적인 위상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後燕은 요동지방을 수복하고는 이 지역을 지배하려고 하였다. 그 내용을 알아보면 龍城에 있던 平州刺史의 治所를 遼東의 남부지방 요충지인 平郭으로 옮겨 설치하였다.⁴⁷⁾ 이는 이제까지 요동지방의 정치·군사적인 중심지 역할을 해왔던 요동군의 중심지가 襄平(현 요녕성 遼陽市)에서 요동지방의 남쪽에 소재한 平郭으로 옮겨졌음을 의미한다. 이는 요동지방에 대한 고구려의 압박을 대비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다. 그런데 이때 幽州와 冀州의 수많은 유랑민이 고구려로 이주해가자 후연에서는 급히 요동태수를 임명하여 이들을 유인하고자 하였다고 한다.⁴⁸⁾ 이렇게 볼 때 후연은 요동지방을 행정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후연왕 慕容垂는 요동지방을 수복한 이후 사방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396년 모용수가 죽고 아들 모용보가 뒤를 이으면서 후연은 급변하는 북중국의 상황에 밀려 점차 위축되었다. 이 때 고구려는 후연과 한동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 시기 후연은 고구려의 요동지방에 대한 연고권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은 모용보가 광개토왕을 '平州牧 封遼東帶方二國王'으로 책봉한 사료에서⁴⁹⁾ 추정할 수 있다. 즉 고구려는 396년경에 이르러 고구려의 王으로서만이 아니라 요동지방에 대한 연고권을 後燕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는 당시 후연의 대외정책이 서방 및 남방정책에 치중하였기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⁵⁰⁾ 후연은 고구려에게 요동지방의 지배권을 인

47) 『資治通鑑』 권106, 晉孝武帝 太元 10년(385). "(慕容垂)徙平州刺史帶方王佐鎮平郭".

48) 위의 책, 晉孝武帝 太元 10년(385).

49) (慕容)寶가 (高)句麗王 安을 平州牧 封遼東帶方二國王으로 삼았다(『北史』 권94, 列傳 82, 高句麗).

50) 池培善, 『中世東北亞史研究-慕容王國史』, 一潮閣, 1997, 308-309쪽.

정해줌으로서 동쪽국경에서의 위협을 줄이는 한편 방어하기에도 급급한 북위의 위협에 군사력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한편 後燕을 포함한 북중국의 정세는 또 다시 변모하였다. 당시 만리장성이북에서 세력을 확장하던 선비족 拓跋氏가 386년 盛樂(現 내몽고 呼和浩特市 부근)에서 魏王을 자칭하고 서서히 모용씨(後燕)를 압박해 왔다. 후연은 395년 漆谷(現 내몽고 涼城縣 부근)에서 탁발씨(北魏)에게 참패당하고 수도를 中山에서 요서지방인 龍城으로 옮기게 되었다. 이 당시 後燕의 영역은 『晉書』 지리지에서도 나타나듯이 대체로 산해관의 동쪽지역에서부터 대릉하 유역에 이르는 지역으로 볼 수가 있다. 용성으로 밀려난 모용보가 398년 시해당하고 그 뒤를 모용성이 계승하였다. 그러나 慕容盛 代에도 계속 후연의 영역이 축소되어 요서·요동지방으로 위축되었다.

서방으로의 진출이 막힌 후연은 고구려방면으로의 진출을 도모하였다. 후연왕 모용성은 광개토왕의 무례함을 트집삼아 고구려를 공격해 온 것이다.⁵¹⁾ 이는 후연의 의도적인 침략이었다. 모용성이 고구려를 침략한 의도는 후연의 내부사정에 기인한다. 즉 후연은 북위의 공격에 계속 위축되어 이제는 서방으로의 진출이 막히게 되었다. 급기야 400년에는 모용성 자신이 황제의 칭호를 포기하고 '庶人天王'이라고 자칭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前代처럼 북중국을 지배하였던 영광은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용성은 즉위이후 여러 가지 개혁정책을 통하여 상황을 개선 시켜보려 노력하였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위의 고구려 공격기사는 모용성이 국내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후연은 이제 동방으로의 진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그 해 정월에 광개토왕이 파견한 사절의 무례함을 구실로 내세웠던 것이다. 이때의 후연

51) 2월에 燕王 盛은 고구려왕이 무례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친히 3만의 군대를 이끌고 습격해왔는데 驃騎大將軍 慕容熙를 前鋒으로 삼아 新城·南蘇 二城을 함락하고 7백여 리의 땅을 개척하고 그곳의 5천 호를 옮겨갔다(『삼국사기』 권18, 고구려본기 6, 廣開土王 9년(400)).

공격은 상당한 전과를 거두었던 듯하다.⁵²⁾

고구려는 후연의 기습공격을 받고서 이에 강력히 대응하였다. 전열을 정비한 고구려는 2년 후 후연에 대한 대대적인 응징을 전개하였다. 이때의 응징에 대하여 『삼국사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광개토)王은 군대를 보내어 宿軍을 공격하니 燕의 平州刺史 慕容歸가 성을 버리고 도망갔다.⁵³⁾

高句麗는 402년 後燕의 平州刺史가 있던 宿軍城을 공격하여 함락시켰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 사건은 2년 전에 있었던 후연침략에 대한 보복이었다.⁵⁴⁾

고구려가 점령하였던 宿軍城의 위치는 당시 고구려군의 작전내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에 대해 『資治通鑑』을 보면

宿軍城은 龍城의 東北쪽에 위치하고 있다.⁵⁵⁾

52) 이때 고구려의 패전은 신성, 남소성 등이 함락되는 등의 패배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고구려가 패배를 당한 사건은 고구려의 내부사정과 연관시켜 해석되기도 한다. 『광개토대왕릉비』에 따르면 고구려는 이 해에 신라구원병 5만을 신라에 파견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고구려 주력군이 대남방 작전에 치중된 관계로 고구려의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으로 고구려가 신성 남소성을 빼앗기고는 700여 리의 땅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에서 당시 고구려의 요동지방 진출범위가 상당히 넓었음을 간접적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53) 『삼국사기』 권18, 고구려본기 6, 廣開土王 11년(402).

54) 고구려는 북방의 요충인 신성과 남소성을 빼앗기게 되자 그 탈환을 계획하였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추론은 고구려의 대외정책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즉 후연에서 401년 모용희가 즉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구려는 축하사절을 파견하지 않았다. 이전에 고구려가 前王인 모용보, 모용성의 즉위를 전후하여 후연에 사신을 파견하였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400년 후연이 신성, 남소성을 침략한 사건 이후, 고구려는 후연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55) 『資治通鑑』 권112, 晋安帝 元興 원년(402)의 註에 “宿軍城在龍城東北”.

라는 기록을 토대로 할 때 龍城이 現 朝陽市부근임을 감안한다면 대체로 오늘날의 北寧 또는 義縣부근이 아닐까 생각된다.⁵⁶⁾ 이러한 宿軍의 위치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 당시 고구려의 공격은 요하를 넘어서 멀리 대릉하 유역에까지 미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숙군성에 있던 後燕 平州刺史의 도망사실에서 385년 平郭에 설치된 바 있던 平州의 治所가 402년 이전 어느 시기에 大凌河 유역에 있는 숙군으로 이동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평주의 僞置문제는 고구려의 요동지방 진출노력과 결부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볼 때 고구려의 요동지방 확보사실은 故國壤王 2년(385)의 요동·현토군 침입 이후부터 廣開土王 11년(402)사이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고구려 광개토왕은 요서지방 후연의 동방 요충지였던 숙군성을 공략한데 이어서 404년에는 燕郡을 공략하였다.⁵⁷⁾ 燕郡은 후연에 소속된 행정구역이다. 또한 燕郡은 慕容皝의 祠堂이 소재하던 곳이기도 하다. 당시 연군의 위치를 現 중국 요녕성 義縣지방으로 비정하는 견해⁵⁸⁾를 고려해 볼 때, 당시 고구려의 공격이 다시 한번 遼河를 건너 요서지역인 대릉하 유역에까지 미쳤음을 짐작케 한다. 후연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진 고구려는 고국원왕대의 아픔을 만회하기 위하여 모용황의 사당을 공격하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어쨌든 이 사료는 고구려의 요동지방 확보를 재차 확인시켜 주는 사료이기도 하다. 이 시기 고구려군의 작전반경이 2차례에 걸쳐 요하를 건너 멀리 요서지방의 대릉하 유역까지 미치게 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고구려의 거센 공격을 받은 모용씨는 고구려에 대한 보복전을 전개하였

56) 箭內互, 「晋代の滿州」, 『滿洲歴史地理』 1, 丸善株式會社, 1913, 259-263쪽. 그 위치를 現 요녕성 北寧市일대로 비정하는 견해도 있다(『中國歴史大辭典』, 上海辭書出版社, 1996, 838쪽).

57) 『삼국사기』 권18, 고구려본기 6, 廣開土王 13년(404).

58) 燕郡의 위치를 대릉하 유역의 義州부근으로 비정하는 견해(松井等, 「隋唐二朝 高句麗遠征の地理」, 『滿洲歴史地理』 1, 1913, 380-383쪽)와 보다 구체적으로 義縣남쪽의 七里河鎮일대로 비정하는 견해도 있다(孫進己·馮永謙編, 『東北歴史地理』, 흑룡강인민출판사, 1989, 203-204쪽).

다.⁵⁹⁾ 그러나 여러 차례에 걸친 고구려 공격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는 고구려 광개토왕에 의한 강력한 요동진출 정책이 마무리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제 고구려는 모용씨에 대하여 우세한 입장을 취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양국관계는 유지되었다. 한편 후연에서는 407년 쿠데타가 발생하여慕容雲이란 인물이 집권하게 되었다. 모용운은 집권하자 본래의 고구려계 성씨인 高雲이라고 개명하였다. 이제 요서지방에서의 모용씨 정권은 소멸되고 말았다.

고운의 즉위이후 양국은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갔다. 요동지방에 대한 고구려의 지배는 지속되었다. 이제 요동지방은 고구려의 영토 즉 西邊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후연의 다음 정권인 北燕에도 계속되었다. 고구려는 요동지방을 확보한 상태에서 북연과 우월한 외교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중국에서는 북연을 멸망시킨 북위가 등장하게 되었지만, 고구려의 요동지방 지배는 계속되었다. 양국은 요하를 경계로 하여 국경선을 형성하였다. 이후 요동지방은 고구려가 멸망할 때까지 고구려의 영토로서 존속되었다. 5~6세기에 걸쳐 고구려가 전성기를 구가하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 들 수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고구려가 요동지방을 차지한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59) ① 燕王 熙가 遼東城을 공격해와 성이 막 함락되려는 차에 (모용)熙는 將士들에게 命하기를 '(城에)먼저 오르지 마라. 그 城을 도평한 연후에 朕이 皇后와 함께 수레를 타고 먼저 오를 것이다' 하니 이로 인해 城안에서는 방비를 엄중하게 할 수가 있어 마침내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다(『삼국사기』 권18, 고구려본기 6, 廣開土王 14년(405)).

② 겨울 12월에 燕王 熙가 契丹을 습격하려고 陜北에 이르렀다가 契丹의 무리가 많은 것을 두려워하여 돌아가던 중에 輜重兵을 버리고 輕兵으로서 (고구려를)습격해 왔다. 燕軍은 3천여 리를 행군한 관계로 土馬가 피로하고 얼어 죽는 자가 길에 즐비하였음에도 우리의 木底城을 공격하였으나 결국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다(위의 책, 廣開土王 15년(406)).

6. 맺 음 말

고구려는 4세기에 이르러 요동지방으로의 진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고구려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요동지방이 필요하였다. 4세기에 들어와 고구려는 왕권중심의 중앙집권력이 강화되었는데, 이를 발판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요동지방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한편 4세기 초에 발생한 쯤의 내부적인 혼란상은 요동지방에도 영향을 끼쳤다. 진의 요동지방 지배가 급속하게 약화되었고, 이 틈을 타고 선비족 모용씨가 요동지방을 장악하였다.

고구려의 요동지방 진출은 모용씨의 등장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고구려는 요동지방을 놓고 모용씨와 대립하고 투쟁하였다. 고구려는 모용씨가 세운 전연과 치열하게 대립하였다. 하지만 전연의 침략을 받아 큰 피해를 입었고, 이 때문에 요동지방으로의 진출이 좌절된 시기도 있었다. 고구려가 요동지방을 확보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요서 및 요동지방의 정치적인 사정이 급변한데 있다. 고구려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던 前秦이 갑자기 망하고, 이 지역에 모용씨가 세운 후연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과 관련이 있다. 고구려는 요동지방을 지배해왔던 전진이 멸망하고 미처 후연이 이 지역을 완전하게 장악하기 이전에, 전격적으로 요동지방을 장악하였다. 4세기 후반 고국양왕 때의 일이었다. 이후 고구려는 확보한 요동지방을 놓고 후연과의 격렬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마침내 광개토왕대에 이르러는 요동지방을 완전하게 차지할 수가 있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은 고구려의 멸망 시까지 지속되었다.

고구려가 요동지방을 확보한 이후 고구려는 크게 성장하였다. 요동지방의 높은 사회·문화적 수준을 흡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지방에서 나오는 다양한 물자를 획득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얼마 후 고구려가 전성

기를 구가하게 되는 발판이 되었다. 고구려가 요동지방을 확보한 이후 얼마 되지 않아 고구려인들은 강력한 자부심을 대내외적으로 표출하게 되었다. 『광개토대왕릉비』와 『모두루묘지』에는 당시 고구려인들의 자부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광개토왕의) 무훈은 四海에 떨쳤다. (나쁜 무리들)쓸어 없애니 국가는 부강하고 백성이 편안히 살게 되었다. 오곡이 풍성하게 잘 익었다.”

— 『광개토대왕릉비』

“이 나라 이 고을이 가장 성스러움을 천하 사방이 알고 있다.”

— 『모두루묘지』

(원고투고일 : 2005. 2. 23, 심사완료일 : 2005. 3. 26)

주제어 : 고구려, 요동, 영토, 모용씨, 진출정책



<ABSTRACT>

A Study on the Policy of *Koguryo's* Advance into *Liao-tung*

Kong, Seok-koo

Koguryo had been continually pursuing the endeavor of the external expansion for its life and growth.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ast more light upon the subject of *Koguryo's* Advance into *Liao-tung*(遼東). Truly, the fact that *Koguryo* occupy the *Liao-tung* Region is a well known. However, until now there has not been much analytical research into the Policy of *Koguryo's* Advance into *Liao-tung*.

In order to do so, this research concentrate on explaining the *Mo-yung* Clan(慕容氏) and *Koguryo* in the fourth century. In this thesis, the matter on the consideration were divided into the following three parts.

1. The process by which *Koguryo* and the *Mo-yung* Clan take advantage of the decline of the Chin(晉), China and advance into *Liao-tung* is examined.

2. The conflict which arise when the borders of *Koguryo* and *Mo-yung* Clan meet as a result of the *Mo-yung* Clan's Eastward Expansion into the *Liao-tung* Region are elucidate. After all, the Policy of *Koguryo's* Advance into *Liao-tung* received a setback.

3. *Koguryo's* domination of the declining *Mo-yung* Clan and the historic

change in the occupation of the *Liao-tung* Region are examine. In the end, *Koguryo* completely dominate the *Liao-tung* Region by the latter half of the fourth century.

Key Words: *Koguryo*, *Liao-tung*, *Mo-yung* Clan, Territory, Advance Policy

K C I